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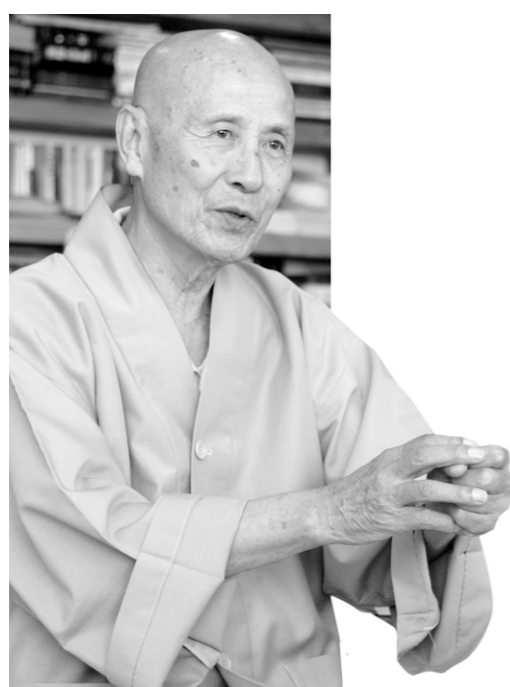


“안다 해도



각암성원(覺庵性元) 스님은
1928년 전남 화순에서 출생한 스님은 1958년 불국사석굴암으로 출가했다. 1959년 범어사 동산 대종사 문하에 입문, 1961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이후 1987년까지 30년간 종무행정에 종사했다. 1988년부터 개운 조사의 <능엄경>을 보고 재발심해, 2006년까지 제방선원에서 20년간 수선인거를 성만했다. 현재 남해 화방사 화방난야에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조만간 평생의 수행체험을 담은 <능엄경 수행요사>를 펴낼 예정이다.

성원스님 남해 화방사 주석(住錫)



5 일 늦은 오후에 도착한 한반도의 최남단 한려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남 남해. 시원한 숲과 푸르른 바다. 그 위에 떠 있는 크고 작은 섬과 기암괴석의 산을 갖춘 아름다운 경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총무공 이순신 장군과 <구운몽>을 지은 서포 김만중을 배출한 충효의 고장인 이곳에는 유명한 관음성지인 보리암과 화방사, 용문사가 있어 더욱 마음을 끈다.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망운산(望雲山)에 등지를 뜬 화방사(花芳寺)·주지 효전은 화방복지원을 설립해 무료노인복지시설인 화방동산과 자활후견기관인 삼배마을, 하동군청소년수련원 등을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다. 자비심 가득한 효전 스님을 만나 보니, 경남 제일의 불교 복지법인을 경영하는 원력을 짐작할 수 있다.
저녁 공양 후, 효전 스님의 안내로 개울을 건너 수십 미터를 올라가 토굴인 화방난야를 방문하자, 성원(性元) 큰스님이 미리 알고 문을 열고 나오신다. 큰스님은 고향 할아버지처럼 자상하고 편안하게 방문객들을 맞이하신다. 날찍한 선방 가운데는 찾상이 달랑 하나 놓여 있고, 옆방을 들여다봐도 몇 권의 책만 펼쳐 있는 소박한 토굴이다. 효전 스님은 행여나 큰스님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저어하실까, 미리 큰스님께 부탁을 올리고 자리를 떠난다.

찾잔에 냉수를 따라 주신 큰스님은 찾상 위에 <유가심인(瑜伽心印) 정본(正本) 수능엄경 환해산보기(瑜伽心印正本楞嚴經環解刪補記)> 전집 10권과 <유가심인록(瑜伽心印錄)>을 올려놓으신다. 필자는 오래 전에 이 <능엄경>을 구경한 적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난해해서 훗날 언젠가는 한번 공부해 보리라 미루고만 바로 그 경전이였다. 불교계는 물론 도교 수행자들에게도 전설적인 도인으로 알려진 경북 상주 출신의 개운 조사(開雲祖師: 1790~?)가 주석을 단 <능엄경> 주석서이다. 이 책을 이곳에서 다시 본인연은 과연 무엇일까.
경전을 이곳저곳 펴가며 수행담을 들려주시는 스님의 안광(眼光)은 밤중인데도 더욱 빛을 발했다. 스님이 개운 조사의 능엄선(楞嚴禪) 수행을 하게 된 기연은 이랬다.
성원 스님이 개운 조사의 <능엄경>을 만나게 된 것은 1985년 가을, 우연히 상주 남장사 주지 중현 스님을 만나고 싶어 그 곳에 들렀을 때, 나한전에서 기거하고 있던 석경(石境) 노스님을 만났다. 개운 조사의 <능엄경>을 150여년 만에 양성 스님이 기적적으로 초록한 것을 석경 스님이 다시 번역해 몇 짚을 구입해 달라고 하기에, 스님은 다섯 짚을 구입해서 몇몇 스님들에게 나눠주고 한 짚이 남아있던 것을 틈틈이 읽어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성원 스님은 구체적인 강의를 듣고 싶어서 석경 노스님을 진주 토굴

“ 육순에 개운 조사가 품은 능엄선 수련 시작 30여 년 종무행정 종사하며 기도·수행에 정진

에 모셔 와서 강의를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는 그럭저럭 불경을 보는 것으로만 여겨서 그 경속에 수행의 비장(秘藏)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심이 나서 이 <능엄경>을 속독하게 되었다. 이윽고 스님은 더욱 깊은 뜻을 알고 싶어서 해인사 용담에 주석하던 석경 스님을 다시 참방하여 가르침을 받고서 본격적인 능엄선 수련에 들어갔다. 1988년 육순의 고령에도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여 마침내 첫 경지에 들어가니 일체의 병이 나오면서 날이 다르게 건강해지고 불법의 정수를 깨닫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었다고 한다.
“인체에 막혔던 기혈이 풀려서 원활한 소통이 됨에 따라 백발이 점차 검어지고 얼굴에 검버섯이 하나씩 없어져 가는가 하면 무릎 관절과 좌골 신경통이 어느 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입속에는 침이 많아지고 심정은 한없이 고요해지면서 입에 비린내나 음식이 싫어졌지요. 또 마음의 동요가 없어지고

잠과 꿈도 적어지고, 즐거운 것을 봐도 즐겁지 않고, 슬픈 것을 봐도 그렇게 슬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개운 조사가 남긴 <유가심인록>에서 태백산인 소승 선사(小僧 仙師)가 <능엄경> 수행의 절정을 기술한 ‘귀복법(歸伏法)’으로 수행해 이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올해 팔순인 스님은 도인의 품모에 육순의 나이처럼 건강하고 허리도 꼳꼳했으며, 얼굴에 검버섯도 거의 없었다.
“부처님은 49년간의 설법 중 아함·방등에서 위빠사나 수행법을 말씀하셨고, <안반수의경>에서는 호흡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능엄경>에서는 문사수(聞思修)의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법과 삼마지(三摩地: 바른 선정에 묶는 태) 규(規: 구멍 또는 문)를 찾아들어가는 성명쌍수(性命雙修: 마음과 몸을 함께 닦음)의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반야·화엄·법화에서는 이미 성불해 있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실체를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세계불교법왕청 몽골불교대학 부설

세계불교명상센터 제2기 학생모집안내

“현대불교 을 축하합니다.”

도심에서 만나는 **히말라야 명상**

평화를 가져오는 심안법

대안적인 삶 (Alternative Living)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 활안큰스님 벽암록 강의 월 2회
- 장 소 : 화정 광명사 법당
- 지도자 : 명상센터 원장 보현법사
- 문 의 : 031)978-9782(광명사), 011-447-1122(원장), 02)969-2410(금강선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9-2 백양빌딩 7층



활안큰스님

1. 진실한 사랑이 있는 화목한 가정생활
2. 동료와 함께 발전하는 지혜로운 직장생활
3. 밝고 명량한 학교생활
4. 시험합격을 위한 밝은 지혜
5. 건강과 행운이 깃든 신나는 자아실현



보현법사

명상을 하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하루 10분씩 3번 아침·점심·저녁을 평화롭게 보내는 행복한 명상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광명사 **세계불교명상센터**

